

익산시, '숲세권 주거시설' 조성 속도

의산시·사업시행자, 성공추진 위한 간담회 개최
마동공원 3월 착공, 주거시설 분양 상반기 실시

익산=고운영 기자

익산시가 명품 숲세권 주거시설 조성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27일 도심 속 명품 주거단지와 친환경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조성 시행사들과 '명품 숲세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마동·모인·수도산공원 시행사와 익산시의 관공이 가장 높은 GS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마비지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명품 숲세권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시는 대규모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에서 시민들이 편히 쉬고 있도록 편의시설과 힐링 공간을 충분히 확충할 것을 당부하는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사업자들에게 요청했다.

도심 속 숲세권 조성사업은 마동과 모인, 수도산, 팔봉, 소라 등 도심 주요 공원 5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55%에 달하는 1.6km² 규모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마동공원개발이 추진 중인 마동공원이 오는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합세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교육과 체험공간’이라는 테마로 아동과 청소년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체험할 수 있는 문화휴양공간이 조성된다.

수도산공원은 수도산공원개발(주)이 맡았으며 ‘남부권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이라는 특징을 토대로 크게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진 자연생태공원, 복합문화센터 기능이 포함된 문화중심공원, 주변 교육시설과 의산의 역사를 연계한 체험학습공원 등으로 구성된다.

모인하고(주)가 추진할 모인공원은 청춘이 One하는(하나되는) 문화놀이터라는 주제 아래 지역주민과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어 팔봉공원(1지구)은 ‘아름다운 향, 꽃, 빛을 품은 문화플랫폼, 소라공원은 ‘도시 속 자연이 품은 황금빛 문화공간’이라는 주제로



조성된다. 마동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명품 도시공원과 함께 친환경 주거단지 건립에도 속도를 높인다.

마동과 수도산공원은 올해 상반기, 모인과 소라공원은 하반기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팔복1지구는 보상진행 상황에 따라 분양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명품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부지에 세세권 주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한층 상승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GS관계자는 “명품 공원과 명품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최고의 아파트를 익산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휴게, 조경시설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세세권 주거시설 제공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 창고형 수납장 '곰고미 창고' 운영

무주군이 창고형 수납장 ‘곰곰이 창고’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곰곰이 창고는 주민들끼리 간식과 의류의 매시자를 나누는 공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기쁘고 하고 자신이 수혜자가 되어 꺼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창고다.

무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착한 나눔 문화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한 곰곰이 창고는 현재 설천면 불대마을, 부남면 우재국, 안성면 시장, 적상면 행정복지센터,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군청 민원실, 무주종합복지관 등 7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군은 주민의견 수렴 후 곰곰이 창고가 필요한 3곳을 더 선정해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안성면 김 모(43)씨는 “무주곰곰이센터를 통해 곰곰이 창고가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창고 안에 ‘해내세요’라고 적힌 사탕 한 봉지를 보면서 소소한 나눔의 기쁨과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수혜 대상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한정짓지 않아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하고 “지나치게, 일하다가 출출하면 당당하게 먹고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는 착한 나눔이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 됐으면 한다”고 덧붙혔다.

무주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는 “착한 나눔과 소비를 부추기는 곰곰이 창고가 코로나19 시대에 참 체면 마을의 가치와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마을 활동가들과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공동화된 마을을 찾아 추진하고 있는 곰곰이 창고 등 착한 나눔 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열 기자

장수군,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사업 추진

장수군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그림책과 구성품이 수록된 꾸러미를 유아들에게 선물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추진한다.

북스타트 꾸러미 신청과 더불어 부모의 도서관 회원가입을 병행해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는 이 사업은 행사 지원 민간단체인 북스타트 코리아와 연계 시향한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장수군에 주소를 둔 0~18개월 영유아들이 대상이다. 꾸러미는 가방, 그림책 2권, 가이드북, 퍼즐로 구성돼 있다.

신청 방법은 도서관에 위치한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6개소(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북), 계남면 영유아는 군립도서관에서 보호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각 도서관에서 도서관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회원 유아기 독서습관 형성과 가족의



도시관 이용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이 사업은 내년에는 18~3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속 시행 예정이다.

장영주 군수는 “코로나19로 영유아들의 프로그램이 없는 요즘 집에서 책꾸러미를 활용해 영유아와 부모간의 올바른 유대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도서관팀(350-23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기종 기자

무주군, 청년창업 도와 지역정착 기반 다진다

무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 공모 선정

무주군이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정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무주다움'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올해 군정실제에서 제시한 7대 프로젝트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무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들의 창업에 사용될 국비 6천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돼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오는 2월 중 군청 홈페이지에 무주다움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7명에 대한 모집 공고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은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군은 72시간 기본창업교육과 창업 역량강화, 창업 아이템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에게 연내까지 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전주지전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다.

또한 군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친



후 창업 적격자 3명을 다시 선정하고 창업공간 조성시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홍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무주지역의 비경제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취업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일 군수는 "청년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이들에게 재정 부담을 덜어 주고 무주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창업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열 기자

익산시, 금마 배수지 시설 늘린다

익산시가 북부권 일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나선다.

시는 27일 북부권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배수지 설치계획을 반영해 배수지 확충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확보한 국비 59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되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금마 배수지가 기존의 5천톤에서 1만5,000톤까지 확충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수 공급이 안정화되면 해당지역에서 겪어온 수압저하, 급수문제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규창 기자

무주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이런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총 사업비 23억여 원을 투입 (국비 50%, 도비 15%, 군비 20%, 자부담 10%) 할 예정이다.

자부담 비율을 10%(20%-10%)줄였다.
농가 부담금을 줄인 만큼 비율은 무조건
(5%)과 농협(5%)이 추가로 부담한다.
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과 농업법인으로 작물에 따라 가입 기간(연중)
은 유동적이다. 자연재해, 화재, 태풍, 폭설, 병
해 등 재해 범위와 보상 수준(60~90%)도 사과
와 농협을 시설 및 시설작물, 벼, 복숭아, 포도
는 품목별로 다르다. **○이월형 기차**

전북CBS
창립60주년기념
성경필사 캠페인

“함께하면 쓸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60th
anniversary
전북CBS

1. 전북CBS 창립60주년기념 성경필사 캠페인

- 가. 필사범위 : 성경전권(66권) 1189장
- 나. 신청기간 : 2021년 1월 ~ 2월
- 다. 필사기간 : 2021년 3월 ~ 10월 20일 마감(방송국 입고)
- 라. 접수비 : 5만원(필사노트 제공 : 바인더형 필사노트 1권형)
 - ▷ 완필자 : 접수비 반환(5만원) 및 기념품제공 ▷ 성경필사전시회 참여 가능
 - ▷ 미필자 : 전북CBS후원금 귀속 (일부 미자립교회 등 기부)
- 마. 문의 및 접수 : 전북CBS 선교국 (전화 256-1011~3) 팩스 063-256-1019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CBS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2. 성경필사본 전시회 예정

- 가. 전시내용 : 바인더형 성경필사 + 성경필사 특별전시
- 나. 전시기간 : 2021년 11월중(확정일자 추후 공지)
- 다. 전시장소 : 전북CBS 전시관





전북지역 교회 성도님!

성경필사를 통해 신앙회복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교회 예배와 모든 일상의 회복을 위해
주님 말씀 붙잡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성경필사해요.